

2020 국별 진출전략

코트디부아르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2020년 대통령 선거	4
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단일화폐 도입	4
다.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다각화 모색	5
라.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가시화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6
가. 정치 환경	6
나. 경제 환경	6
다. 산업 환경	7
라. 정책·규제 환경	9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나. 교역	11
다. 외국인 투자유치	13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5
가. 교역	15
나. 투자	1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18
III. 진출전략	1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1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
3. 한-코트디부아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3
4. 진출 시 유의사항	26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2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28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29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0
부 록	
對코트디부아르 K패키지	31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경제성장, 현상 유지에 가까운 소폭 하락 예상

○ 高 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확대, 정부 투자·지출 증가로 2019년과 유사한 성장세* 전망

－ 농산물 등이 수출 견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 기대

* IMF : 7.7%(2017) → 7.5%(2018) → 7.5%(2019) → 7.3%(2020),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7.7%(2017) → 7.4%(2018) → 7.0%(2019) → 6.9%(2020)

○ 2020년 대선, 원유·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변동이 변수로 대두

－ 대선 여파로 인한 정치·사회불안, 코트디부아르 대표 농산물* 가격 하락이 高 성장률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코코아, 커피, 면 등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21.42	22.53	23.11	23.70	23.8	24.4	25.4	25.4
명목 GDP	십억 달러	26.8	34.2	32.1	34.7	38.4	43.5	43.2	47.1
1인당 명목GDP	달러	1,281	1,473	1,325	1,424	1,538	1,630	1,722	1,850
실질성장률	%	10.7	8.5	8.4	7.8	7.8	7.4	7.5	7.3
실업률	%	6	5.3	N/A	N/A	N/A	N/A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0.4	1.2	1.0	1.5	1.2	1.0	2.0
재정수지(GDP대비)	%	N/A	-2.3	-3.0	-4.0	-4.2	-3.8	-3.0	-3.0
총수출	백만 달러	10,859	12,634	11,908	10,661	12,545	10,911	11,775	12,897
(對韓 수출)	"	1.7	7.6	14.5	9.7	7.9	7.0	N/A	N/A
총수입	"	9,772	10,722	9,885	8,380	9,594	8,791	9,049	10,117
(對韓 수입)	"	121	219	117	129	111	119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166	1,370	1,370	2,281	2,951	2,120	2,726	2,780
경상수지	"	N/A	511	-567	-609	-802	N/A	N/A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510.62	494.52	591.58	593.14	594.3	581.8	N/A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N/A	N/A	N/A	N/A	N/A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N/A	4.39	4.49	5.77	6.15	6.69	7.23	N/A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Passport Cities, World Bank, GTA, 한국무역협회, EIU, IMF(2018, 2019년 추정치 및 예상치)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20년에도 7%를 웃도는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면서 가계 소비, 정부 투자, 기업활동 활성화 여건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 교역 면에서는 서아프리카 단일화폐 도입, 서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출범의 진행 추이가 중요한 변수로 대두됨. 제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화를 꿈꾸는 코트디부아르의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들이 개발협력, 원조, 투자 등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0년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 결과가 고 성장 지속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가. 2020년 대통령 선거



2020년 대선 결과에 따른 현 정권 재집권 혹은 정권 교체 여부

- 現 대통령*의 3선 혹은 다른 후보에 의한 재집권, 정권 교체 등 현재로서는 대선 결과 및 이에 따른 전망은 불투명
 - － 2002~2010년에 걸친 내전 및 정치 불안으로 경제 파탄을 경험한 코트디부아르로서는 2020년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
 - * 알라산 와타라(Alassan Ouattara) 대통령으로 2010년 대선 여파로 발발한 내전을 거쳐 취임, 이후 연임에 성공하여 2020년까지 집권 예정
- 일각에서는 과거 사태로 인한 학습효과로 큰 무력·유혈사태 없이 치러질 것으로 기대
 - － 그러나 낙관은 시기상조로 2020년 초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

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단일화폐 도입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단일화폐(ECO) 도입 추진

- 2019년 6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ECOWAS)* 회원국 간 단일화폐 도입 천명
 - － 가급적 2020년에 정식 도입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전망
 - * 서아프리카 소재 국가 간의 경제 공동체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
- 일각에서는 세파프랑(CFA Franc)을 대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는 세파프랑 사용이 교역면에서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 근거
 - * 1유로 = 655.957 CFA

다.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다각화 모색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중국) 막대한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도로, 교량, 발전소, 항만, 생수 공급, 문화·스포츠 시설 건설 등 전방위적인 활동 전개
 - * 아비장항 확장(4억 6,600만 달러), 제4 대교 건설(9억 3,300만 달러), 아마수크로-부아케 연결도로(95.6 km, 2억 7,300만 달러), 올림픽 경기장 등
- (프랑스) 전통적 우방으로 주요 도로, 교량 건설 지원은 물론 유력 기업들이 주요 산업부문에 진출하여 우위 확보
 - * PHB 대교(372m) 재건, 베티에교(190 m) 건설, 부아케-페르케세두구 연결도로(232km) 등
-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ICA 등의 재정지원 사업, 유력 기업의 투자진출 병행
 - * 아비장市 주요 입체교차로 건설 지원, 도요타(Toyota)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추진(투자액 미정)
- (기타) 영국의 경우 4개 병원·의료센터 건설(3억 6,0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생수 공급 및 도로 건설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

라.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가시화

55개 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 출범 추진

- 2018년 3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회원국 27개국 참여로 시작
 - 2019년 5월 기준 22개국에서 비준이 완료되면서 공식 출범 조건 충족
 - 2019년 7월 기준 회원국 55개국 중 54개국 서명 완료*
 - * 에리트레아(Eritrea)가 유일한 미 서명국
- 공식 출범 시 역내 교역 활성화로 인한 혜택 기대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AfCFTA 출범 시 2021년까지 연간 2조 CFA(약 40억 달러)의 교역 증가 예상
 -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자재 수출, 공산품 수입이라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띄고 있어, FTA 출범 이후 역내 경쟁 역시 심화될 전망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높은 경제성장률로 경기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 가운데 아직 미흡한 수준인 제조업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며, 특히, 농산물 및 원자재 생산력을 바탕으로 가공 및 제조업 발전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 중. 외국인투자 장려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입,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 역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을 위한 조치이며, 단, 2020년 12월 예정된 대선이 과거와 같은 충돌 및 소요사태 없이 마무리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가. 정치 환경

2020년 대선 레이스 본격화에 따른 정치·사회불안 요소 상존

- 과거 대선 결과*로 초래된 내전으로 인해 경제 파탄에 이르렀던 경험이 있어 2020년 대선의 여파에 관심 고조
 - 외타라(Ouattara) 現 대통령이 3선 도전 관련 명확한 입장 발표를 보류한 가운데 야당 후보들의 출마 결정 등에 따라 대선 레이스는 물론 향후 정치 지형에 큰 변화 예상
 - 과거 2000년, 2010년 대선 이후 쿠테타 등의 정치 불안, 내전 확대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경제가 곤두박질
 - * 당시 코트디부아르 경제성장률 현황 : 2000년 -2.1%, 2002년 -1.7%, 2011년 -4.4%(자료 : 세계은행)
- 대선을 앞두고 일부 기업가들이 당분간 투자 등 비즈니스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 대두
 - 시나리오 중의 하나이나 현실화될 경우 2020년 경기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

나. 경제 환경

꾸준한 고 성장으로 내수 및 수입수요 확대 기대

- IMF, AfDB, WB 등에서 7%를 상회하는 성장률 전망
 - 서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세 구가 예상
 - * IMF의 주요국/권역별 성장률 전망치 : 중국 6.0%, 유로존 1.6%, 미국 1.9%, 아세안 5.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6%, 나이지리아 2.5%, 남아공 1.1%

- 2020년 교역의 경우 수출과 수입 각각 9.5%, 11.8% 증가*할 전망
 -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 수요가 꾸준히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
- * 수출 : \$117억 7,500만(2019)→\$128억 9,700(2020), 수입 : \$90억 4,900만(2019)→\$101억 1,700만(2020)
- 구매력 제고에 따른 내수 확대로 수입의존도 높은 제품군 시장 활성화
 - 소비재, 보건·의료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제품 구매의사 확대

다. 산업 환경

농업 및 농산물·천연자원 가공

- (현황) 농업 부문은 전체 GDP에서 20%대 비중 차지
 - 특히 카카오, 커피, 목재, 면, 바나나, 파인애플, 팜유, 어류 등 1차 산업 산물 경제성장 견인
 - 그러나 풍부한 생산량에 비해 낮은 생산성 및 가공기술 미흡으로 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가공제품 제조 및 수출이 어려운 상황
- (카카오) 연간 생산량 1.5~1.7톤을 기록, 전 세계 생산량의 35% 점유
 - 수출 1위 품목으로 2012년 기준 32억 달러 기록
 - 그러나 카카오 가공률은 30%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세계은행에 따르면 카카오 관련 제품의 수익의 80%는 원재료가 아닌 가공식품(예 : 카카오 분말, 카카오 버터 등)에서 창출
- (커피) 아프리카 3위, 세계 13위 커피 생산국
 - 수출 규모는 2018년 기준 1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 기록
 - 대(對)한국 수출 1위 품목인 커피 가공률은 5~10%대로 매우 낮은 편
- (기타) 고무, 면 생산 등의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거나 생산성, 가공률 면에서는 역시 약세
 - 정확한 통계치 입수가 불가하나 일각에서는 천연고무 및 면사의 가공률을 각각 2% 미만, 2.3%대로 추정
- (시사점) 원료/원재료 생산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2, 3차 가공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
 - 현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우수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설비·장비를 도입, 가공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에 주목 필요

(중고)자동차/부품

- (현황/전망) 2018년 기준 코트디부아르 자동차 시장 규모는 4억 5,600만 달러*로 추정
 -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로 향후에도 꾸준한 시장 확대가 기대
- * 현지 정보 매체 KOACI 측에서 2019년 2월에 발표

- (특징) 중고차, SUV, 유럽 및 일본 브랜드 강세
 - 구매력 대비 차량 가격이 매우 고가인 탓에 일반 소비자들의 중고차 수요가 높은 편
 - * 2018년 기준 전체 운행차량은 60여 만대로 추정되며 이 중 80%가 중고차인 것으로 알려짐. 정확한 통계치 입수가 어려우나, 2015년의 경우 3만 6천 대의 중고차가 수입된 것으로 파악
 - 현지 도로 사정으로 SUV나 픽업트럭 등의 차량을 선호, 관련 수요 많음
 - * 2017년 기준 판매량에 따르면 4륜구동 차량 3,700대, 픽업트럭 차량 2,630대, 승용차 1,800대 선으로 이를 뒷받침
- (수입제한) 중고차, SUV, 유럽 및 일본 브랜드 강세
 - 노후 중고차량의 다수 유입으로 대기오염은 물론, 교통체증 및 자동차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 연식에 따른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 시행(2018년 7월)*
 - 이후 중고차 수입이 일시 급감했으나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계층에서 중고차 수요가 지속 되면서 업계에서는 원만한 회복세 기대
 - * 차종별 수입 가능 연한은 승용차 및 택시는 5년, 미니버스 및 5톤 트럭 미만 트럭은 7년, 5톤 이상 트럭 및 34인 이상 차량은 10년
- (시사점) 상대적으로 최신 연식인 한국 차량*에 대한 선호도 증가 기대
 - 수입제한 조치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비교적 최신 연식인 한국 중고차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 *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 교체 주기가 빠른 편으로 최신 연식의 중고차 공급이 용이

호텔/관광

- (현황/전망) 최근 주목할만한 성장세 기록, 잠재력이 높은 부문으로 평가
 - 객관적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호텔업의 경우 2013년 1,700개였던 호텔·숙박시설 수가 2015년 2,043개로 15% 증가(코트디부아르 관광부)
 - GDP 대비 호텔업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20년 7%로 확대 전망
 - 관광업이 경우 GDP 대비 비중이 2019년 기준 5.9%로 추정되며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 * Jumia Travel이 발표한 “2018년 관광업 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여행객 수는 2016년 308만 명에서 2018년 348만 명으로 13%가량 증가
- (특징) 호텔 신축 증가, 프랑스계 기업 강세
 - 최근 3~4년간 숙박 수요 증가에 따라 주로 신축된 것은 호텔
 - * Radisson Blu(263개 객실), Azalai(200개 객실), Seen Hotel(190개 객실), Golden Tulip INN(130개 객실) 등
 - 프랑스계 거대 호텔체인 아코르(Accor Group) 社에서 자사 브랜드(Sofitel, Novotel, Pullman, iBis 등) 다수 운영 중
- (시사점) 정부 차원에서 서아프리카 대표 관광국으로 육성 추진, 향후 시장 확대 기대

- 2025년까지 아프리카 5대 관광대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각종 사업 추진 중
- * 대규모 동물공원(서부 Jaqueville 지역) 건립, 10km에 달하는 해안선 정비 및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 등

소매유통

- (현황/전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로 높은 편
 - 2018년 기준 소매유통 시장 규모는 판매액 기준 65억 달러 기록
 -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3년 기준에는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유로모니터)
- (특징) 점포 판매 비중이 절대적이며, 소득 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 심화
 - 점포 판매 비중이 95% 이상인 반면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의 원거리 쇼핑 비중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
 - 가계소득이 소비패턴은 물론 구매 유통채널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대형슈퍼 등 현대적 유통 채널과 재래시장이 공존
 - * 중상류층의 경우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매장을 이용하는 반면 서민층의 경우 재래시장, 인근 상점을 주로 이용
 - 레바논계인 프로슈마(Groupe Prosuma) 社*의 시장지배력이 두드러짐
 - * 1966년 창립 이후 2019년 현재 17개 브랜드를 통해 159개의 매장을 보유

라. 정책·규제 환경

농산물 및 천연자원 가공산업 집중 육성

- 카카오, 커피, 면, 캐슈너트, 고무 등의 농산물 및 천연자원 생산력에 비해 가공기술이 미흡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난망
 - * 코트디부아르 주요 농산물별 가공률 현황 : 코코아(반제품 33%, 완제품 1.5%), 커피(5~10%), 캐슈너트(15%), 면사(2.3%), 천연고무(2% 미만)
- 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 고용창출 도모
 - 가공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협력 및 투자진출에 기대

중소기업 활성화 모색

- 전체 기업 수의 98%, 고용의 2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 코트디부아르 중소기업연합회(FIPME)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64%가 창립 10년을 넘기지 못하며, 60%에 달하는 기업들이 자금 부족 상황
 - 문제 해결을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재정지원 경제포럼’* 등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
 - * 2016년 1차 포럼 이후 19개 금융기관에서 1조 2,760억 세파프랑(약 21억 4,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외국인 투자 장려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간소화를 위한 단일 창구 개설
 - FDI 관장 기관인 투자청(CEPICI) 내 48시간 이내 기업 설립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도입
- 2018년 8월 新 투자법 도입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
 - 관세 40% 축소, 투자 지역에 따라 영업수익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2 시장 분석

※ 내전 이후 7% 중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는 자체 시장뿐 아니라 서아프리카 중심국이라는 측면에서 잠재성이 큰 시장임. 경제발전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기반이 미흡하여 외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세계 유수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중으로, 우리 기업의 경우 지리적·문화적 괴리로 시장진출이 아직은 미흡한 편이나 인프라, 소비재, 보건·의료 부문 등을 필두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시점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내전 종료 이후 高 성장 지속

- 年 성장률 7% 후반대, 경제발전 가속화로 산업재, 소비재 동시 성장
 - － 인프라 및 주택 건설 활성화, 생활 수준 개선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
 - * 소비재 시장 규모, 2014년 182억 달러에서 2019년 262억 달러로 증가 기대
- 부유층과 서민층의 구매성향, 주요 구매경로 등이 확연히 다른 양분화된 시장
 - * 고소득층은 유럽(프랑스) 제품, 일반 서민층은 주로 중국산에 의존

국가 주도로 산업화, 현대화, 선진화 모색

- 2016~2020년간 총 545억 달러 투입*, 신흥개발도상국 진입 추진
 - * 제2차 국가개발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 PND 2020)
-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인프라 확충, 농식품 가공기술 육성 등에 주력
 - * 국가 예산의 6%인 32억 달러 투입, 의료기기 및 의약품 조달시장 성장 주도

가공기술 및 제조기반 미흡, 외국기업·수입품 의존도 높은 편

- 풍부한 농수산·천연자원 대비 산업화 부진으로 가공기술 및 제조기반 미약
 - － 주요 농산물인 코코아, 캐슈너트 등의 가공을 외국계 기업이 주도
 - * 코코아 : 세무아(CeMoi, 프랑스), 캐슈너트 : 올람(Olam, 싱가포르)

나. 교역

수출

- 2018년 소폭 감소세 이후 회복 국면
 - － 2018년 수출은 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감소

- 2019년 8월 기준 수출은 85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
- 2019년 9월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네덜란드, 베트남, 미국, 프랑스, 스페인,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으로 전년 대비 큰 변화 무(無)
- 국가별 수출 비중은 네덜란드 9.4%, 베트남 6.4%, 미국 및 프랑스 6.0%, 스페인 5.6%, 말리 5.0%, 부르키나파소 4.9% 순
- 대(對)한국 수출은 매우 미미한 편으로 한국과의 교역 부문에서 소개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1	18	카카오	4,557	4,925	4,527
2	27	광물성 연료	1,316	1,575	1,880
3	08	과실, 견과류	1,036	1,291	1,388
4	71	귀금속	816	845	801
5	40	고무 및 관련 제품	549	844	755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8년 기준



수입

- 2018년 증가 이후 2019년에는 소폭 감소세
 - 2018년 수입은 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2% 증가
 - 2019년 8월 기준 수입은 71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의 소폭 감소세 기록
- 2019년 9월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미국, 인도, 터키, 네덜란드 등
 -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17.1%, 나이지리아 15.3%, 프랑스 10.4%, 미국 5.2%, 인도 3.9%, 터키 2.8%, 네덜란드 2.7% 순
- 대(對)한국 수입은 2018년 2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소폭 상승한 반면, 2019년 8월 기준 수출은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급감
 - 특정 품목의 일시적인 수출 확대 등으로 연도별로 편차가 큰 편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1	27	광물성연료	1,249	1,593	2,380
2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부분품	870	867	1,028
3	10	곡물	671	737	876
4	87	철도용, 궤도용 외의 차량	586	640	721
5	85	전기기기	595	507	641

자료 : Globla Trade Atlas, 2018년 기준

다. 외국인 투자유치

최근 동향

- 서아프리카 FDI 중심국으로 급부상
 - 2012년 이후 연평균 7~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지로서의 잠재력 부각
 - 2017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21% 감소한 데 반해 코트디부아르는 17% 성장세 기록
 - 서아프리카통화화폐연합(UEMOA: Union Economique et Monétaire Ouest-Africaine)* 회원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25.8%를 점유

주요 분야

- 투자유치 주요 분야는 광산·채굴, 금융 분야로 제조업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
 - 2017년 기준 1, 2위에 포진한 두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39.2%, 27.8%에 달함
 - * 자료 : 서아프리카중앙은행(BCEAO : Central Bank of West African States), 2018년

주요 투자국

- 2017년 기준 주요 투자국으로 유럽국가 다수 포진
 - 유럽국가 점유율이 47%로 압도적인 가운데 미국, 캐나다 등 북미 비중도 27%로 높은 수준
 - * 프랑스 22.3%, 캐나다 17% 등
 - 인근에 있는 모로코가 공격적인 투자에 주목
- 2018년 이후 중국의 급부상이 감지되나 공식적인 통계로는 아직 확인 불가
 - 인프라 부문 원조 및 투자에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지나 정확한 수치는 추후 확인 필요

최근 3개년 대(對)코트디부아르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해당연도 외국인 투자금액	494	577	675
외국인 투자 누적액	7,381	7,697	9,475
그린필드(공장설립)형 투자 건수	671	737	876
GDP 대비 외국인 투자 누적액 비중	586	640	721

주 : \$1=586 CFA 적용

자료 :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Investment), 2019년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

2017년 기준 대(對)코트디부아르 주요 투자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FDI 금액	비중	주요 투자 분야
1	프랑스	216	22.3	제조, 호텔, 금융중개, 운송, 광산/채굴
2	캐나다	165	17.1	광산/채굴
3	모로코	164	17.0	금융, 제조
4	벨기에	125	12.9	통신, 건설
5	미국	111	11.4	유전개발
6	카이만제도	72	7.5	광산/채굴
7	스위스	58	6.0	금융

자료 : 서아프리카국가 중앙은행(BCEAO), 2019년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

가. 교역



전체 교역 동향

- 2018년 양국 교역 규모는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 1억 1,900만 달러 대비 5.9%의 증가세 기록
 - 수출 1억 1,900만 달러(7.4% 증가), 수입 700만 달러(12.9%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무역 수지는 1억 1,2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8.7% 상승
 - 2019년 7월 기준의 경우 수출 7,500만 달러, 수입 5백만 달러 기록 중

한국-코트디부아르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19	29.3	126	5.9	80	-
수출	111	44.3	119	7.4	75	3.8
수입	8	-46.9	7	-12.9	5	-2.4
수지	103	66.1	112	8.7	7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9년 7월 기준



대(對)코트디부아르 수출 동향

- 2018년 기준 한국의 대(對)코트디부아르 수출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억 1,900만 달러 기록
 - 2019년 7월 기준의 경우 7,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의 증가세 시현
- 가전·전자제품, 건설기계류, 자동차,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띄며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
 - (호조품목) 컬러 TV(7.4%), 건설중장비(111.8%), 냉장고(635.5%), 화물자동차(71%), 기타 석유화학제품(14.6%) 등
 - (부진품목) 승용차(-37.2%), 기타 정밀화학원료(-22.5%), 합성수지(-32.3%) 등

한국의 대(對)코트디부아르 10대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 목	2018년		2019년 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총 계	118,933	7.4	74,940	3.8
1	컬러TV	24,622	28.1	21,910	35.6
2	건설중장비	19,880	111.8	8,376	-26.7
3	승용차	6,198	-37.2	5,862	186.2

4	기타 정밀화학제품	7,351	-22.5	5,168	-4.6
5	원동기	4,446	24.3	4,606	80.8
6	합성수지	12,323	32.3	4,485	-49.2
7	냉장고	3,737	635.5	4,427	78.3
8	화물자동차	4,750	71.0	3,531	9.6
9	기타 석유화학제품	7,300	14.6	3,144	-26.7
10	접시 세척기	1,053	134.5	2,176	106.7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2019년 7월 기준

대(對)코트디부아르 수입 동향

- 2018년 기준 한국의 대(對)코트디부아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700만 달러 기록
 - 2019년 7월 기준의 경우 455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4% 소폭 감소
- 주요 수입품은 동괴 및 스크랩, 기타 식물성재료, 초코렛 및 코코아조제품,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어육 등이나 수입금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세
 - (호조품목) 동괴 및 스크랩(37.5%), 기타인쇄물(530.9%)
 - (부진품목) 초코렛 및 코코아조제품(-32.2%), 어육(-19.2%), 참치(-98.7%)

한국의 대(對)코트디부아르 10대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		2019.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873	-12.9	4,552	-2.4
1	동괴 및 스크랩	6,204	37.5	4,165	0.3
2	기타 식물성재료	261	-1.9	212	8.0
3	초코렛 및 코코아조제품	156	-32.2	88	-31.0
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70	0.0	43	75.6
5	어육	13	-19.2	26	128.5
6	참치	3	-96.7	7	241.3
7	농기계부품	0	0	6	0
8	무선전화기	0	0	2	0
9	분석시험기	0	0	1	0
10	목재생활용품	0	-100.0	1	0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2019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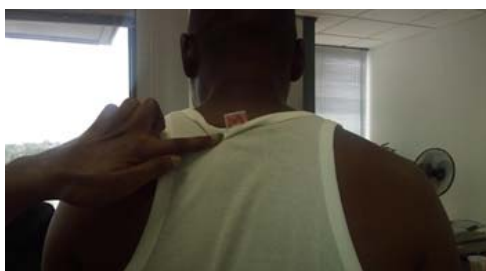
코트디부아르 수출 성공 사례 : 쌍방울社の 남성용 내의 시장 진출

- 연중 무더운 더위 탓에 코트디부아르의 남성 대부분은 원활한 땀 흡수를 위해 내의 착용이 습관화되어 해당 제품 수요 증가

- 남성 내의의 경우 다른 의류와 유사하게 아자메(Adjamé)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데 대부분 중고내의임
 - * 전체 소비재의 90%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전통시장
- 가계구매력 문제로 중고의류 구매가 빈번한 코트디부아르에서 신제품 내의를 공급하게 된 흔치 않은 사례
 - 이후 쌍방을 社 제품은 아자메 시장 외 대형유통매장으로도 납품

성공 사례

- ▶ 아비장 무역관은 2016년 가나에서 TRY 남성용 내의를 수입 중인 바이어와 접촉 후, 코트디부아르 아자메 시장으로 납품 성공. 현재 대형매장 HYPER HAYAT로도 공급 중
- ▶ 최초 오더액 최소 2만 달러 이상



TRY 내의를 착용한 코트디부아르 남성



대형마트 HYPER HAYAT에서 판매 중인 내의

나. 투자

대(對)코트디부아르 투자 동향

- 2018년 대(對)코트디부아르 투자는 신고액 66,000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
 - 신규법인 설립 건은 0건으로 2017년과 동일 수준
- 교민기업을 제한 순수 투자진출 기업으로 코트디부아르 외국인 투자유치기관(CEPICI)에 등록된 기업은 LG 전자 1개사로 확인

한국의 대(對)코트디부아르 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법인수(신규)	신고액	투자액
총 합계	606	3	739	606
2016	207	55	182	166
2017	214	48	577	217
2018.1분기	48	7	69	47

자료 : 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 법인, 지점, 지사 포함, 2018년 1분기 기준



업종별 투자 동향

- 대(對)코트디부아르 투자가 절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현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부문에서 사업 수주에 따라 소액 발생
 - 현지 발전소 수주공사에 참여, 프로젝트 사무소 등을 운영하던 일부 기업들도 후속 사업 수주가 불발되면서 시장 철수하는 상황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원자재/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협력

- 풍부한 원자재 및 농수산물 생산능력에 비해 가공기술·설비 부족*으로 高 부가가치 창출 난망
 - 현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설비·장비 도입 필요성 대두
- * 코트디부아르 주요 농산물별 가공률 현황 : 코코아(반제품 33%, 완제품 1.5%), 커피(5~10%), 캐슈너트(15%), 면사(2.3%), 천연고무(2% 미만)



아비장 소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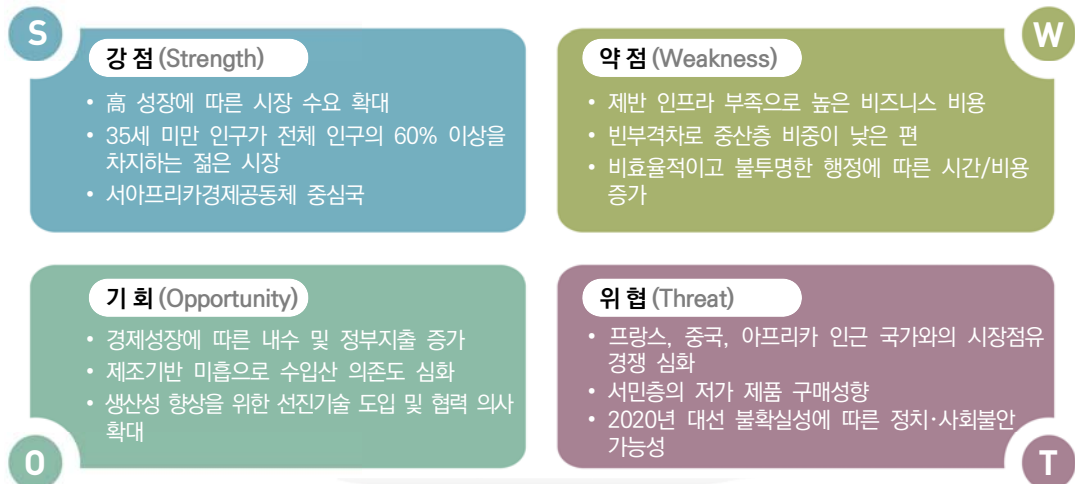
- 아프리카 지역 인프라 부문 투자는 아프리카 인프라 부문 투자는 정부 및 MDB 모두 증가세로 시장 확대 기대
 - * 2017년 : 정부 \$815억(22% ↑), WB \$70억(92% ↑), AfDB \$34억(15% ↓)
- 에너지, 교통, 수자원, 농업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협력, 우리 기업 참여 독려를 통한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모색
- 高 부가가치 분야(투자개발형, front-end engineering design)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 수주 및 관련 기술·설비·제품 수출 모색

Ⅲ. 진출전략

※ 코트디부아르는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산업재/자본재 수요가 지속 증가가 기대되며, 서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이나, 아직은 인프라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점, 유럽기업과 중국기업이 각각 고가 및 저가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 큰 장애물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틈새시장 진출전략이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코트디부아르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수입의존도 높은 산업재/소비재 수출 확대 • 제조업 value chain 진입에 부합하는 투자진출 모색	제조업 기반 구축 협력 수요 활용 시장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 타깃 소비계층 수요에 부합하는 가격/품질 정책으로 승부 • 품질 대비 가격을 부각시킨 포지셔닝	한국産 브랜드/이미지 정립을 통한 현지 수요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프로젝트 수주로 한국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가공산업 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진출 모색	주재국 정부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WT 전략 (위험 대응)	• 기 진출 유력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기회 확보 • 양질의 중고제품 활용을 통한 서민층 공략	유력국/기업과의 협력 구축을 통한 시장기회 확대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제조업 육성정책 활용 시장수요 발굴 및 진출 확대

* 동 이슈는 양국 경제협력에도 해당되므로 동 부분에서 상술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농산물/원자재 단순 생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 대두
 - 현지 가공기술 미흡으로 2, 3차 가공보다는 원 상태로 그대로 수출하면서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미미
 - * 카카오, 커피, 캐슈너트, 면, 천연고무 등
- 정부 차원에서 가공기술 장려 및 이를 토대로 제조업 육성 천명
 - 신속한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외국기업 참여 장려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원자재·농산물 가공 분야 우수 기업·기관 참여 협력사업 추진
 - 초기에는 경제협력 형태로 접근, 추후 투자진출을 통한 value chain 진입 모색

2-2. 의료·보건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시설·제품 공급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수입 의약품 수입 증가 및 의존도 심화
 - 현지 의약품의 10% 정도만이 현지 생산으로 공급,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 90%로 추정
 - * 코트디부아르 보건부 2017년 자료
- 의약품 수입 현황도 지속적인 증가세
 - 2017년 2,400만 달러에서 2018년 3,100만 달러로 33% 증가
- 적절한 의약품 공급 부족, 낮은 구매력 등의 요인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의사 처방 대신 소위 ‘자가진단’ 및 처방을 통해 길거리나 시장에서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제품 구매
- 정부 주도 의료설비·병원 확충에 따른 의료기기·장비 수요 증가
 - 7개 지역에 102곳의 의료시설·병원 설립 추진
 - * 세계은행의 2,100백만 달러 자금 투입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의약품 조달 기회 모색
 - 이들 기관 발주사업 참여를 통한 공적 시장 공략*이 초기 진출은 물론 사적 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
 - * 신봉제약 개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경우 코트디부아르 정부 공인 치료제로 등록, 공적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실제 활용은 물론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설비 공급
 - － 방사선 치료기기, x-Ray, 초음파기기, 심전도기기 등의 영상진단기기 및 시약, 환자용 자동 침대 등 가구류
 - － 주사기·장갑·붕대 등 의료 소모품의 경우 중국産 저가 제품과 경쟁 불가피
- 초기 시장진출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활동 병행이 효과적
 - － 제품기부,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이 시장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2-3. 소비재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제고로 소비재 수요 확대
 - － 고소득층은 유럽(프랑스)産, 일반 서민층은 중국産에 의존하는 이중구조
 - * 소비재 시장 : 2014년 \$182억 → 2019년 \$262억(현지 매체 Fraternité Matin)
- 여전히 품질보다는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 다수
 - － 가격 문제로 중고제품에 대한 관심 및 수요 다대
 - *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연식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도입(2018년 7월) 이후 상대적으로 연식이 낮은 한국 중고차에 대한 관심 증가(아비장무역관 지사화업체 바이어 등)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소득 격차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
 - － 유럽제품과 중국제품 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의 제품 공급
 - － 필요 시 양질의 중고품 우선 공급으로 시장접근 가능
- 자동차는 물론 의류, 신발,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의 부문에서 중고제품에 대한 수요 기대
 - * 2019년 상반기 대(對)코트디부아르 수출기업 및 품목 분석 결과 중고차(버스 포함), 중고의류 부문 수출 기업 다수로 확인(아비장무역관)

3 한-코트디부아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원자재·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협력을 통한 시장기회 창출

추진배경

- 풍부한 원자재 및 농수산물 생산에 비해 가공기술·설비 부족*으로 高 부가가치 창출 난망
- 현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설비 도입 필요

* 코트디부아르 주요 농산물별 가공률 현황 : 코코아(반제품 33%, 완제품 1.5%), 커피(5~10%), 캐슈너트(15%), 면사(2.3%), 천연고무(2% 미만)

진출전략

- 원자재·농산물 가공 분야 우수 기업·기관 참여 협력사업 추진
- 유희 장비 지원, 가공설비·기술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 가능

* CSR,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OVOP(one village one product) 등

기대효과

- 정책·시장수요가 절실한 분야 지원을 통한 한국 기업 이미지 및 관련 시장 진출 제고
- 우리 기업의 기술·노하우 수출, 가공장비·설비 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진출에 따른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

우간다 작물가공 자원화 설비 구축을 통한 시어산업 가치사슬 강화 사업

☞ 우간다 북부지역 시어 생산자 농민 협동조합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수행, 냉압착 공정 기반의 시어버터 생산·가공 센터 구축(36억 원 규모)

* 시어버터 : 시어나무 열매에서 추출하는 원료로 화장품(보습), 연고, 식용유 등의 원료로 활용되며, 아프리카에서 연간 60만 톤 생산

3-2.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협력

추진배경

- 아프리카지역 인프라 부문 투자는 아프리카 인프라 부문 투자는 정부 및 다자개발은행(MDB) 모두 증가세로 시장 확대 기대

* 2017년 : 정부 \$815억(22%↑), WB \$70억(92%↑), AfDB \$34억(15%↓)

- 재정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 track record 구축에 따른 추가 수주 및 기업가치 상승면에서 MDB 사업 참여 중요

— AfDB에 대한 한국 분담금 수준에 비해 수주 실적은 저조

* 2018년 기준 분담금은 8,100만 달러로 전차 대비 66% 증가

- AfDB 등 MDB 재원 활용 및 사업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코트디부아르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더 적극적인 대응 필요

진출전략

- 에너지, 교통, 수자원, 농업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협력, 우리 기업 참여 독려를 통한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모색
- 高 부가가치 분야(투자개발형, front-end engineering design)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 수주 및 관련 기술·설비·제품 수출 모색

기대효과

- 수주실적 구축에 따른 기업 인지도 제고로 추가 수주기회 확보 가능성 증가
- EPC는 물론 관련 기술·설비 수출에 따른 시장진출 기회 확대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불이행

- (현황) 대금결제 불이행 혹은 지연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
 - 애초 계약사항 미이행의 경우 바이어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까다로울 수 있음
- (대응전략)
 - ☞ 대금결제 능력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현지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한 해결책 모색 필요

한국 수입업체에 선금 요구	바이어 진위 파악
■ (현황) 한국 수입업체에 물품을 판매하기 전 선금 요구 사례 - 자본 부족을 이유로 선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금을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대응전략) ☞ 가급적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급업체가 실제 구매계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 필요	■ (현황) 일부 사기업체들이 바이어를 표방, 초청장 발급 및 거래 요구 사례 빈번 - 진위가 불명확한 바이어들이 국내기업을 접촉,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하며 초청장 발급 등을 요청하나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경우 확인 ■ (대응전략) ☞ 바이어 업체명, 연락처 등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무역관을 통해 확인 가능), 특히, 연락처가 휴대전화일 경우에는 진위를 의심해볼 필요 있음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6309	수입관세율(%)	40.5
중고의류	수입액('18/US\$백만)	27.5	대한수입액('18/US\$백만)	1.6
	선정사유	구매력 문제로 중고의류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 패션산업으로도 자리매김		
	시장동향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가나, 중국, 영국, 프랑스 제품 수입 꾸준		
	진출방안	다른 산업에 비해 가격의 구매를 크게 받지 않음(중고제품 자체가 저가) 품질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시장진출 모색		
품목명 2	HS Code	3901	수입관세율(%)	25.5
플라스틱 원료	수입액('18/US\$백만)	150.4	대한수입액('18/US\$백만)	4.4
	선정사유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		
	시장동향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진출방안	현지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모색		
품목명 3	HS Code	8528	수입관세율(%)	7.5~22.5
전기/전자제품	수입액('18/US\$백만)	34.3	대한수입액('18/US\$백만)	164
	선정사유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시장동향	자체 생산이 전무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저렴한 중국산 중고제품이 끊임없이 유입		
	진출방안	가격경쟁력 확보, 유력 바이어 네트워킹 중요		
품목명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30.5
자동차부품	수입액('18/US\$백만)	31.9	대한수입액('18/US\$백만)	999.8
	선정사유	노후차량이 많아 차량 부품 수요가 많음		
	시장동향	가격에 민감하여 질이 나빠도 저렴한 제품 선호		
	경쟁동향	중국제품 다량 유입		
	진출방안	좋은 한국제품 인지도를 활용하여 진출		
품목명 5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5
의약품	수입액('18/US\$백만)	24.7	대한수입액('18/US\$백만)	145.8
	선정사유	양질의 의약품 부족으로 수입산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의약품 수요 꾸준		
	경쟁동향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레바논 등		
	진출방안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을 통한 공적 시장 진출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의료	선정사유	말라리아, 에이즈, 장티푸스 등 열대 풍토병 발발이 만연, 관련 제품/의료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의료시설 부족,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여 병원 건설 추진, 의료장비 교체 수요 증가
	경쟁동향	유럽, 미국, 중국기업과 경쟁
	진출방안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공립병원 건설 사업 적극 추진 및 이를 활용한 제품/설비 납품 추진
품목명 2		
정보통신	선정사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 및 수요 확대
	시장동향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프로젝트 수주지원 요청이 있으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
	경쟁동향	프랑스, 일본, 미국기업 진출
	진출방안	기술협력, 장비 지원 등 원조/공헌활동을 토대로 국가 브랜드/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진출기반 조성
품목명 3		
인프라/플랜트	선정사유	한국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인지도
	시장동향	MDB, 차관 등 국외 재원 확보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경쟁동향	중국, 일본, 유럽기업들이 프로젝트 자수 추진
	진출방안	EDCF 지원 사업, AfDB 주도 사업 진출 참여제고 모색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AfDB 활용 인프라 수주사절단

○ 개요

- 명칭 : AfDB 활용 인프라 시장 진출 포럼·상담회
- 일시/장소 : 2020년 3분기/아비장
- 내용 : AfDB 및 발주처 초청 설명회, 프로젝트 수주 상담회
 - * 주요 프로젝트 내역 및 지원 절차 발표, 분야별, 프로젝트별 담당자와 국내기업 간 1:1 상담
- 분야 : 에너지(화력, 신재생에너지, LNG), 교통(철도, 도로, 교량, 항만, 지하철/경전철), 환경(수자원개발, 수처리), 농업개발(농수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 기술 등)

○ 참가자 구성

- (한국) 사업 수주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설비·제품 납품 가능 중견·중소기업 등
- (해외) AfDB 주요 분야별(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농업개발 등) 스페셜리스트, 민간투자 및 파이낸싱 담당자 등, 주요 발주처, 우리 기업과 협력 가능한 인프라 부문 현지기업·다국적기업,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심 금융기업 등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대통령 선거	2020.10.31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일정	일시(잠정)	비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단일화폐(ECO) 도입	2020년 중	추진 중이나 실제 도입 여부는 불분명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SALON INTERNATIONAL DU BÂTIMENT 2020	2020.6.17 ~ 19(잠정)	건설, 건축
FOIRE AGRICOLE COMMERCIALE DE CÔTE D'IVOIRE 2020	2020.7.2 ~ 13(잠정)	농업, 농산물, 농식품
TRAVEL SHIP AFRICA 2020	2020.10.31 ~ 11.2(잠정)	교통

I. 한-코트디부아르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코트디부아르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한-코트디부아르 협력 현황 및 이슈

- 양국 주요 외교·경제·문화 협력 현황
 - 1961년 7월 : 외교관계 수립
 - * 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
 - 1966년 2월 : 상주 공관 설치
 - 1994년 2월 : 김종호 대통령 특사 방문, 부아니(Boigny) 전 대통령 장례식 참가
 - 2002년 5월 : 한-코트디부아르 의원 친선협회 방문단
 - 2002년 6월 : 브로 그르베(Bro Grebe) 체육부 장관, 2002년 월드컵 개막식 참가
 - 2006년 11월 : 바카요코(Bakayoko) 외교부 장관,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참가
 - 2012년 5월 : 나보(Nabo) 수삼림부 장관, 여수박람회 개막식 참가
 - 2014년 10월 : 와타라(Ouattara) 대통령 최초 한국 국빈방문
 - 2014년 1월 : KOICA 아비장 사무소 개설
 - 2016년 6월 : KOTRA 아비장무역관 재개설

코트디부아르 협력 잠재력

- 지리적·문화적 거리만큼 양국 간 협력, 고위급 방문 등의 사례가 많지 않음
 - 서아프리카 중심국으로 이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구축 필요
- 한국정부 ODA를 활용한 인프라 기반 구축, 태권도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 등에 관심이 높은 편

코트디부아르 및 주요국 협력 현황

- 프랑스
 - 전통적 우방으로 식민지배*를 거친 탓에 정치·경제·문화적 유대관계가 건실
 - * 1842년 프랑스와 보호조약 체결, 1893년 식민지로 공식 편입, 1958년 독립공화국 수립
 - 경제적으로는 화폐인 세파프랑이 과거 프랑스 프랑에 이어 현재 유로에 고정환율로 연동
 - * 1유로 = 655,957 CFA

- 프랑스 기업은 일찌감치 인프라, 제조, 물류, 은행, 관광·여행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진출, 시장 주도

* Société Générale(은행), BNP Paribas(은행), Accor(호텔), Carrefour(유통), Bolloré(물류), CeMo(제조) 등

- 주요 도로,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참여

* PHB 대교(372m) 재건, 베티에교(190m) 건설, 부아케-페르케세두구 연결도로(232km) 등

○ 중국

- 막대한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도로, 교량, 발전소, 항만, 생수 공급, 문화·스포츠 시설 건설 등 전방위적인 활동 전개

* 아비장 항 확장(4억 6,600만 달러), 제4 대교 건설(9억 3,300만 달러), 야마수크로-부아케 연결도로(95.6km, 2억 7,300만 달러), 올림픽 경기장 등

○ 일본

-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ICA 등의 재정지원 사업, 유력 기업의 투자진출 병행

* 아비장 시(市) 주요 입체교차로 건설 지원, 도요타(Toyota)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추진(투자액 미정)

○ 기타

- 영국의 경우 4개 병원·의료센터 건설(3억 6,0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생수공급 및 도로 건설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

나. 한-코트디부아르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조성

-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경제발전 지원

- 코트디부아르 정부, 한국 산업발전 과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노하우 및 우수 사례 공유 희망

-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 필요

- 제조업 육성, 보건·의료시설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

*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 사업(EDCF 자금, 1억 1,000만 달러)



경제협력을 토대로 문화·사회 협력 구축

- 양국 문화 교류는 태권도, 전통공연, 영화 등에 국한

- 경제 부문 협력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협력 분야 확대 모색 필요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제조업 육성 협력

① 농산물·원재료 가공산업 육성 지원

추진 배경

- 풍부한 원자재 및 농수산물 생산능력에 비해 가공기술·설비 부족
 - － 가공률이 미흡하여 대부분 재배·수확 상태로 수출, 부가가치 추가 창출이 어려운 실정
 - * 코트디부아르 주요 농산물별 가공률 현황 : 코코아(반제품 33%, 완제품 1.5%), 커피(5~10%), 캐슈너트(15%), 면사(2.3%), 천연고무(2% 미만)
- 현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설비·장비 도입 필요성 대두
 - * 정부發 언론 내용, 아비장무역관과 산업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

추진 내용

- 원자재·농산물 가공 분야 우수 기업·기관 참여 협력 사업 단계별 추진
 - － 유희 장비 지원, 가공설비·기술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 가능
- 가공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장비이전 지원 사업 추진
 -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해 해당 인력양성
 - － 농업 관련 연구원·공공기관 등을 통한 유희 장비 지원
-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사회공헌활동 전개
 - － 농업기술 관련 공공기관, 농산물·원자재 확보 희망 우리 기업 참가 CSR 추진
 - － 대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OVOP(one village one product) 사업* 추진
 - * (예시) 식품 : 카카오, 캐슈너트 등, 뷰티제품 : 시어버터

기대 효과

- 정책·시장수요가 절실한 분야 지원을 통한 국가 및 기업 이미지·브랜드 제고
 - － 주재국 정책 방침에 부합하는 이슈 지원을 통해 시장진출 및 협력 기반 조성 필요
- 현지 시장 진출경쟁 격화에 대응,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확보
 - － 우리 기업의 기술·노하우 수출, 가공장비·설비 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진출에 따른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 등

나. [B2G] 인프라 진출 협력

① AfDB 활용 코트디부아르 및 아프리카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기획요인

-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2010년 이후 최대 규모, 투자 및 수주 경쟁 치열
 - 2017년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전년 대비 22% 증가한 816억 달러 기록
 - 중국, 프랑스, EU, 일본, 인도 등 공격적인 투자 및 수주 활동에 총력
 - * 중국 : 2017년 194억 달러(48% ↑), 프랑스 : 2017년 21억 2,300만 달러 투자로 과거 식민지배 국가에 대한 원조 및 투자 지속, EU :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필두로 31억 9,300만 달러 투자
- 다자개발은행(MDB)의 인프라 투자 및 정부 투자도 증가세
 - 2017년 MDB 투자는 127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3% 증가
 - 정부 투자는 3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 인프라 시장 상승세 주도
 - * WB의 경우 69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2% 증가, AfDB는 33억 6,400만 달러로 소폭 감소(15%)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자원

권역별·국가별 AfDB 인프라 지원 현황

권역별 지원 현황		주요 국가별 지원 현황(백만 달러)					
		금액		국가	금액		
		2016	2017		2016	2017	
		카메룬	323	274	남아공	31	123
		가봉	68	491	코트디부아르	306	270
		세네갈	99	234	에티오피아	314	140
		말리	40	80	가나	112	93
		르완다	44	198	케냐	612	253
		우간다	138	152	탄자니아	219	20
		나미비아	0.4	373	나이지리아	1,310	22

자료 : AfDB Annual Report 2017, 중동지역본부 관할국 제외(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

분야별 AfDB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분야	교통	에너지	수자원	통신
금액/비중	1,071/40.7	1,148/43.7	338/12.9	73/2.8

자료 : AfDB Annual Report 2017

- 시장 잠재력에 비해 한국 기업의 인프라 투자 및 수주실적 미약
 - 아시아(162억 달러, 50.5%), 중동(92억 달러, 28.7%) 대비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저조한 편

연도별, 국가별 아프리카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수주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6 기준)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수주액	점유율	수주액	점유율	수주액	점유율
1	중국	35,015.1	49.4	35,375.4	54.9	34,559.6	56.2
2	이탈리아	7,917.3	11.2	6,512.2	10.1	5,781.5	9.4
3	프랑스	6,083.7	8.6	3,593.4	5.6	4,713.7	7.7
4	터키	4,667.1	6.6	3,008.2	4.7	3,136.7	5.1
5	대한민국	3,801.2	5.4	3,225.2	5.0	2,708.9	4.4
6	미국	955.4	1.3	889.1	1.4	1,598.1	2.6
7	브라질	2,717.0	3.8	2,075.0	3.2	1,468.5	2.4
8	스페인	2,414.4	3.4	1,560.6	2.4	1,147.5	1.9
기타		6,693.5	10.2	8,276	12.8	6,425.1	10.3
합계		70,949.3	100	64,515.1	100	61,539.6	100

자료 : Engineering News-Record(ENR)

우리 기업의 최근 3개년 대륙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총액	중동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18	32,116	9,204 (28.7%)	16,208 (50.5%)	1,041 (3.2%)	3,709 (11.5%)	1,222 (3.8%)	733 (2.3%)
2017	29,006	14,578 (50.3%)	12,492 (43.1%)	555 (1.9%)	320 (1.1%)	698 (2.4%)	362 (1.2%)
2016	28,192	10,694 (37.9%)	12,675 (45.0%)	1,380 (4.9%)	600 (2.1%)	1,225 (4.4%)	1,619 (5.7%)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추진 필요성

- AfDB 사업 참여를 통한 레퍼런스(track record) 구축으로 진출 확대 필요
 - 국가 재원이 한정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AfDB 지원 프로젝트는 재정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된 사업
 - AfDB 등 다자개발은행 사업 수주 시 track record 구축에 따른 추가 수주는 물론 기업가치 상승 기대
- 지리적/문화적 괴리로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킹 사실상 부재
 - 한국 분담금 수준(8,100만 달러, 전차 대비 66% 증가)에 비해 우리 기업 수주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것은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킹 부족에 기인

☞ 정부 주도 사업의 성공 사례 창출을 통한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 부각은 물론,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우리 기업 지원을 통한 수주 확대 모색 필요



추진 전략

현황/ 문제점	(기업) • MDB 사업 수주경쟁 치열, track record 부족으로 수주 난망 • 핵심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단순도급형 수주에 편중,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 미흡 •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관심 및 이해 부족 (KOTRA 등 인프라 진출 지원 기관) • 정보제공 역할이 기본이나 체계적인 인프라 정보 제공 톨 부재 • 전문성 부족으로 컨설팅 및 수주 협상지원 과정 지원에 한계 • 인프라/건설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역할 중첩
개선 방향	• 인프라/프로젝트 정보 제공 내실화 • 고부가가치 사업 참여 확대 • 대중소 동반진출 확대 • MDB 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현지 진출 로컬 및 다국적 기업들과의 교류 확대
추진 전략	① 프로젝트 정보제공 기능 제고 및 톨 정립 ② MDB 지원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참여 지원 ③ 중소·중견기업의 인프라 진출 확대 지원 ④ MDB와의 교류 정례화에 따른 네트워킹 강화 ⑤ 인프라 관심 기업의 현지화 활동 지원 ⑥ 상생협력·공유가치 활용, 인프라 시장진출 기반 조성

Ⅲ. 향후 對코트디부아르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코트디부아르 경제협력 기본방향 및 총괄 창구·기구 마련 필요

- 양국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사례가 적어 상호협력 의제·과제 발굴 및 수요 확인 절차 미흡
 - － 기존 시장 분석을 토대로 발굴한 의제·과제의 적합성, 실효성 확인을 통한 과제 확정 필요
 - － 양국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기구·위원회 정례화를 통해 추진 활동 점검
- 양국 경제협력을 총괄한 현지 창구·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 참여 확대
 - － 대사관, KOICA, KOTRA 등 진출 공공기관이 3곳에 불과, 현지 수요 및 의견 수렴, 추진사업 발굴에 제한
 - － 이 중 한 기관을 단기적인 경제협력 창구로 지정, 과제 발굴 및 이행, 여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제안 등의 총괄 기능 부여

②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 차원의 K패키지 수립

- 경제·통상, 문화, 보건·의료, 방산 등 협력 가능 분야 반영 K패키지 마련
 - － 양국 정부 간 협의 채널 공식화를 통해 각 분야 실현 가능 전략 수립 필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연주	관장	아비장무역관	+225 2251 4715	julee@kotra.or.kr

KOTRA자료 20-113

2020 국별 진출전략 코트디부아르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59-0(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